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구좌읍 세화리 해녀 고영순 해녀 인터뷰

해녀: 고영순(1939년생, 만 80세, 어촌계장),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출생

인터뷰 일자 : 2019. 06. 18. 오전 11시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고영순(A로 기록)

Q : 저기, 어촌계장님은 여기에서 태어나신 겁니까?

A : 예, 세화에서 태어나고, 세화에서 결혼하고, 다 우알동네, 시장통 전항동에.

Q : 그,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

A : 팔십(80), 만 팔십(80)세

Q : 그러면 1940?

A : 아니, 39년생

Q : 39년생?

A : 예

Q : 그, 해녀 작업은 몇 세까지?

A : 열여덟(18)부터 육십셋(63)까지

Q : 육십셋(63)까지. 그 물질작업하는 거, 물질기술하고 예, 지식에 대해서 오늘 여쭙볼 건데, 예를 들면은 구쟁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?

A : 소라를 잡을 때?

Q : 예

A : 소라는 이, 가을 때 되가면은 소라가 벼밭에 좀 나오고, 이 겨울철 들어가면은 들어가볼고, 여 소곱더레, 바위 소곱더레 들어가볼면은 소라를 저, 이제 오(5)개월, 유월(6월)달부터 구월(9월)까지는 금채생활, 산란기라부니까, 금채해가지고 구월달부터는 이제 공동 작업을 허던지, 자기 어촌계마다 작업을 해가지고, 저 계통판매

Q : 그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 잡았을 때에 소라들이 어떤 데에 많이 서식을 합니까?

A : 그 옛날에는 소라가 좀 많을 때는, 이 제주도 말로 여, 그 여 우터레 있곡 허주만, 요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우리 바당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허영 해버리니까, 흙, 흙트레 다 들어가서 호멍이 아니면 잡을수가 없주. 호멍이로 다 굶어 내사주.

Q : 굶어 내서 예. 음, 소라는 알을 어떤 식으로 낍니까?

A : 그 영 보면은 천초 곁인데도, 늦어서 천초혈 때는 그디 다 알 싸가지고 벌써 우리가 혈 때는 요만큼씩 허여. 경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먹이가, 먹이 좋은 데는 빨리 크고, 먹이 없는 데는 빨리 안 크고, 다 모든 바다에 전부 나오는 어종들이 문딱 다 이 유월(6월) 칠월(7월) 때에 산란기

Q : 그 먹이라고 하면 어떤 것?

A : 천초 7뜯 거, 감태 7뜯 거, 다 그런거. 그런거 한디는 소라가 빨리 크고, 바다가 그런거 가 없는 디는 크질 못해 가지고, 경헌디, 일년에서 이년 차는 막 굶어. 많이 많이

Q : 이년 차는 예, 보통 우리가 잡는 거는 몇년 차 정도 되는 거?

A : 우리거는 저 육썸치(6cm)로 칠썸치(7cm)까지 긴디 칠썸치(7cm)로 허면은 너무 흙은 거로 허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늦어서 같이 허다 보면은 칠썸치(7cm)가 안가고 육썸치

(6cm) 반 정도 되면은 크다고 봐야 합니다.

Q : 그러면은 그 거를 보통 요즘 해녀분들이 한번 들어 갔을 때 몇키로 정도 잡았습니까?

A : 처음 금채 기간에는 유월말에서 구월달 할 때 첫 물질 할 때는 뭐, 많이 낚 때는 백키로 (100kg) 잡는 디도 있고, 오십키로(50kg) 잡는디도 있고, 또 못허는 사름은 십키로(10kg) 그런 정돕니다.

Q : 그러면은 그 소라는 이게, 지금 가장 많이 잡는 거잖아 예?

A : 이제, 금채기간이 됐습니다. 유월(6월) 일일(1일)부터 금채

Q : 전복은 전에는 많이 잡았는데, 요즘은 조금

A : 전복이라는 건 하나 보이지도 않고, 옛날에는 우에도 있고 허주마는 보통 이전 가랑, 고랑, 가랑에 그런 틈에 있지, 우에 나오는 건 드물고요. 또 저 이 여가 밑에 이 바위틈, 옆으로 요렇게 물이 그렇세, 머흘 돌 그런디 있곡, 전복 살아난 디는 항상 그 자리가 두어물 세 물찌 가보면 있어. 짙은 디 보단도 이런 방파제 밑에는 돌 엉덕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은 사름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, 그런 데는 전복을 매 해 잡아도 있곡, 경 한헌데는 없어. 지금 전복 하나 보젠해도 엇고, 남원더레는 전복이 나는거 봐도 이쪽은 전복이 엇어.

Q : 전복은 깊은 물속에서 주로 나지 예?

A : 깊은, 아무래도 깊은 쪽으로 봐야주.

Q : 요즘 여기는 해삼 많이 잡습니까?

A : 해삼, 이제 일월(1월)달부터, 십이월(12월)달부터 일월(1월)까지 허면은 사월(4월)까지는 해삼이 많이 허고, 우리 세화에는 모래 발이 다 전부라부니까 해삼은 많이 낚니다. 다른 거는 뭐, 별로 안 나고.

Q : 해삼은 어떤 데 잡습니까?

A : 해삼은 보통 보면은 지저분헌 데, 모래 옆에, 그 돌 옆에, 옆에, 그런데서 해삼이 사는 곳은 해녀덜이 어떻게 아느냐면은 해삼 있었는데는 똥을 모래똥을 막 싸 놓으면, 그 걸 봐가지고 부슬겨(?) 놓면은 해삼을 잡고,

Q : 모래를 파서?

A : 아니. 파지를 앓고, 모래우에 해삼들이 똥 싸놓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허면은 그 똥을 보면은 어느 쪽에 간고(?) 해서 가 보면은 이런 틈에 해삼이 있고, 해삼 모래 있는 데가 많읍니다. 해삼들이

Q : 해삼은 예. 그럼 세화리는

A : 해삼은 많고

Q : 일년에 잡는 거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?

A : 이제 십이월(12월)달부터 허면은 해녀들이 보통 십키로(10kg) 잡는 사름, 오키로(5kg) 잡는 사름, 하루 오십키로(50kg)는 잡읍니다.

Q : 아, 그러면은 이게 가격도 비싸잖아 예?

A : 비싸고 또 십이월(12월)달부터 일월(1월)까지는 좀 비싸고, 훈 만팔천원(18,000원) 키로(kg) 당, 그런데 늦어가면은 일월(1월), 2월 되가면은 많이 싸, 만삼천원(13,000원)도 허고, 만오천원(15,000원)도 허고. 올리는 또 만이천원(12,000원)까지 내려가지고 이 사름들이 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먹질 안허여가지고서 내립니다.

Q : 우리 제주도는 흑해삼은 없고 다 홍해삼

A : 다 홍해삼

Q : 그 여기는 우미는 많이 안 나지마는 예, 우미가 언제 나고 어떻게
A : 우미는 이제 오월(5월)달부터 천초 하면은 한달간. 유월(6월)말까지 해서, 나는 데는 한 혼사름이 혼 사오십(4,50)개 봉다리 삼십키로(30kg)짜리, 그렇게 허고. 우리 세화 곶은 데는 다 모래 바당이꼭 허지, 여가 다 뭐 되가지고 저 나질 안했어. 혼사름이 혼 열(10) 봉다리 나까? 다섯(5) 봉다리 열(10) 봉다리. 상군 하군 해서 많이 허는 사람.

Q : 거문 그 한 봉지에 얼마 정도 감수과?
A : 삼십만원(30만원), 키로(kg)에 만원
Q : 아, 한 사십(40) 봉지만 하면 천만원(1,000만원)이 넘으큰게 예.
A : 예, 우리 하노 곶은데는 천초 고단이라서 막 그 구좌 지역에는 하노서 천초 툫 그 것이 많이 생산되부니까 뭐 허고 탄 디는 별나. 행원도 많이 나고, 월정도 많이 나고 허는디 우리 세화 경우에는 다 모래로 메와버가지고 많이 안 납니다. 조금

Q : 우미 해서, 이거는 어떻게 해서 판매를, 이 마른채로 판매를
A : 마른채로 막 잘 몰라가지고, 예, 삼십키로(30kg) 되는 것이 혼 봉다리, 그러면은 그 것에 입찰을 하면은 이제 돈이 얼마 나오주. 삼십삼만원(33만원)에서 수수료 떼보면 한 이십구만 몇천원쯤 될 거우다.

Q : 우미는 어떤 곳에 잘 자랍니까?
A : 그냥 이런 가까운
Q : 빌레
A : 바다에, 짙은 딘 더 많이 나주마는, 것도 우미 나는데에도 혼 도가 있어가지고 가에 주로 얹은 디 많이 나고, 우미가 막 포개차면은 살수록 또 우도 우미하고, 구좌에 우미는 썩니다. 남군 우미보다도. 알이 뭐가 많이 나서. 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, 삶으면.

Q : 알이 무성허잖아 예
A : 예, 허영게 발라가지고, 또 그 전초도 가는 곳 마다 달라예. 여수 쪽으로 가는 건 푸르게 삶고, 푸르게 발르고, 또 이 경남쪽으로 가는 거는 또 하얗게 발르고, 거문 그거 삶으면은 목같이 청목같이 되면은 그걸로 제리도 만들고, 다 그거

Q : 거문 이거 발린거를 발릴 때는 어떻 해야 될거짱?
A : 발릴 때는 천초를 물에 놔가지고 이 바닥 이런 세멘 위로 다, 뭐냐, 그 덮으는 거 고라 뭐라
Q : 가빠?
A : 아니, 가빠가 아니고, 위에 씌워 가지고 허는 거를 차광막 차광막
Q : 차광막?
A : 그런걸로 막 넓혀 놔가지고 거기서 천초를 다 물줘서 저녁 때 위에 덮었다가, 짠물, 주면은 뒷날 널면은 한 몇일 발린 것 보단 낱습니다.

Q : 아~
A : 전에 옛날에는 물 줘서만 그렇게 해났는디 요즘은 사름들이 탁 덮영 놔두면은 거기서 하룻밤 물 담그는 것도 어느 정도 발뤄져. 한 사흘 삼일 발뤄면은 그거 담아 가지고 또 삼십키로(30kg)씩 담으면서 출하.

Q : 그 물 담글 때는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?
A : 아이고, 무슨 민물. 다 수돗물. 수돗물로 막 해주고.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해주마는 짠물로 하면은 더 빨리 발뤄수도 있지만 요즘 어디 그 발뤄는디 저 어디서 짠물 질어다가
Q : 경허면은 한 삼일 정도면은 완전히 발뤄진다~.

A : 예, 완전히 발췌서 나가
Q : 그 속에 있는 불순물도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?
A : 다 하얗게 된거 제거해주.
Q : 음
A : 별경허던 전초가 하얗 해. 하얗게 되면은 그걸을 이제
Q : 구분허기가 쉬우켜 예?
A : 응, 하얗 허면은 다 싹 널면은 오늘 열(10) 마다리를 물에 담가, 저 우에 덮어서 비니루를 딱 덮어 놔두면은 뜻뜻해가지고 그 것이 싹 발췌여. 그러면은 싹 널면서, 우로, 것도 견어서 주지 안허고 우로 물을 줍니다. 우로 수도 해서 물을 싹 주면은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머리를 써가지고 좀 한결허게 해 가.
Q : 우미묵도 잘허시잖아?
A : 예, 우미 그걸로 뭐 허면은 우리 반찬도 이 식당에도 허고 허는 디, 싹 맛에 파는 것도 있고, 우리대로 허는 거 만큼은 아무래도 못합니다.
Q :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에 미역 작업 허던 얘기 기억 남수과?
A : 예게. 옛날에는 돈 살 것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는 우린 어린 때니까 얘기 업고 미역 마중 가면은 얘기 쟈 맥이레. 해서 허고, 또 어머니덜은 그거 정 오던지 행 와가지고 뒷날 새벽에 다 널어. 다 단 짓어가지고, 그거 백이 돈 살 것이 없어 가지고 훈근에 얼마, 옛날에는, 요즘은 키로(kg)주만 옛날에는 훈근에 얼마. 그래서 단 딱 지어놔가지고, 그거 막 해서 말려서 풀아. 그걸로 돈 사고
Q : 이거는 몇 월에 작업 해 가지고
A : 이거는 이월 삼월에, 보통 삼월. 삼월달에 하면은 완전히 물이 풀리고, 삼월달에 보통 합니다. 삼월 보름 물찌는 완전히
Q : 삼월 보름 예
A : 예, 좀 늦어도 , 늦으면은 또 미역이 간간이 세어가지고
Q : 툷 작업은 어떻
A : 툷?
Q : 예
A : 거는 일월(1월) 말. 이제도 안허는디도 있덴 험디다마는 우리 경우에는 다 일월(1월)말에, 일월(1월) 말 되면은 다해서, 요즘은 툷 값이 안가가지고, 작년에는 툷값이 안가도 저 유통 판매헌 사름은 돈이 좀 낱고, 요즘은 유통이 안되가지고 툷이 너무 험해가지고 다 날 걸로 키로(kg)당 사백오십원(450원)씩, 해서 날 걸로 풀아.
Q : 이게 툷은 거기에 많은 저기 지충이라던지 그 갯댤이 작업을 해줘야지 예.
A : 그것도 허주마는 요즘에는 잡종이 잘 안납니다. 포래굴은 것도 이 물들때는 툷 우에 늦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인척허고 그러지 안헌 데는 툷이 좀 오래 커야 굳어서 좀 키로(kg)도 나가고 허주마는 너무 어린 때는 못합니다. 남군에 거는 일년에 두번 벤다고 허는 데 툷은 좋는디 무게는 잘 안나가주.
Q : 아, 일년에 두번도 수확 햄구나 예
A : 예. 남군에는. 요즘엔 모르겠습디다마는 그전엔 일년 유월달에 한번 허고 했는데 이제는 안햄주게. 툷값이 안가니까 안허여.
Q : 툷 일본더레 수출허고 허지 안허염수과?
A : 수출이 안되가지고. 완도에 양식툷이 너무 좋아가지고 허고, 또 외국툷도 많이 들어오는

모양이고, 일본도서 나는 모양이고, 해서 돌이 시세가 하락돼가지고, 와서 상인덜이 사갈라고 허질 안허여서 조합에서 이제 조합장님네가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판매를. 천초도 올리는 한 오년(5년)까지 혈 물량을 다 저장해놓고 있다고 허니까 그 사름덜이 사 갈려고를 안허는데 삼년계약을 했으니까 올리까지 계약. 경허니까 허니까 흘 수 엇이 왔다 가는 겁니다.

Q : 수협에서

A : 아니 일본 한천에서 아니 부산 한천에서

Q : 요즘 성계 작업 많이 하고 있잖아 예

A : 예. 성계도 지금 달 이 오월(5월) 말 넘어서, 저 유월(6월)이 조금 이서가민 알을 씹니다. 다. 모든 해조류가 다 유월(6월) 칠월(7월)에 문 다 알 싸니까 것도 싸불민 성계가 쓰고 맛이 쓰고, 해서 안합니다. 요즘 이 물찌까지는 혈걸로 생각합니다.

Q : 아, 요번 물찌까지?

A : 예

Q : 성계는 알 싸서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

A : 그건 그대로 폭석폭석 허영계 물이 성계 위로 다 망아리로 나와. 경헌디 그것이 '알 싹다' '알 싹다' 하니까 그 건 어떻게 알이 되는가 하고

Q : 그게 알싸서 성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겠다 예

A : 예. 그 때 보면은 성계 빨리 큼니다게. 막 빨리 크고, 또 문어 굵은 것도. 문어도 새덜 등지 지을듯이 이레 자기 들어 갈만큼 구멍을 훑아 가지고 그 속에 다 자기 아이덜 거를 다 해놓고 들어가면은 눈만 뼈끔뼈끔 베끗디로 우리가 보면은 혈 때 잡는데 그게 알 싹시기가 오월(5월) 유월(6월)입니다. 유칠월. 게민, 알 다 싸놓고 나오면 그 알 싹 문어는 베끗디 나와서 죽어. 다 죽어불고

Q : 거른 그 문어는 호맹이로 잡아야 되켜 예?

A : 호맹이로. 혈령 골갱이. 베끗디 손으로 잡을게 그렇게 너무 돌아댁기는거나 잡지 못합니다.

Q :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창충의 머리를 뒤집어야 되지 예?

A : 속에 거 내장을 빼야, 먹히고, 내장을 빼야

Q :

A : 잡아내면 갈고리 가지고 동기면은 메주시 나오고, 또 짚은디 들어가는 디는 안 나올수도 있지만은 보통 그거는 새 동지같이 자기 들어갈 만큼헌 돌 훑아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 문에 보통은 다 험니다. 보통 자갈들을 베끗디로 다 내쳐가지고. 그래서 그 안에서 알 싹우고 그러면은 나와서 딸 다 난¹⁾ 다음에는 그 에미문어가 죽주

Q : 그러면은 해녀들이 그 구멍을 다 한번 확인하겠습니까 예?

A : 아,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, 물 썩 다른거 잡다보면은 그게 봐집니다. 위에서 보이는게 아니고, 보이는 디도 있지만은 가서 허다보니 봐지면 호맹이로 갈고리로 그냥

Q : 그런 데를 잘 알아야 상군 해녀가 되는 거지예?

A : 아니, 그거는 상군 하군 엇이 얹은디도 있고 문어는, 또 칠팔월에는 막 알 쳐가지고 요만큼씩 크면은 감태 굵은거 올르면은 그것이 같이 막 올라오고, 그렇게 험니다.

Q : 알은 칠팔월에

A : 아니, 이제 이제, 칠월에, 여름에, 모든 것이 다 여름에 다, 그래서 가까운 디 다 올라오

1) 난 : 낳은

고

Q : 여기는 몸이라든지 이런건 안 나오니까?

A : 몸은 전에는 여기 갯골쇠라고 허는 그 골이 있는데, 맘(몸)은 막 짚은디가 나거든. 경헌데 요즘은 그것도 없고 뭐, 바당이 허영해 가지고

Q : 오분자기 이건

A : 오분재기도 전혀 없고, 오분재기는 돌구멍에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, 문지르면 그 오분재기 형태를 손으로 문직아지주. 게민 가으로 가서 그거 털고, 옛날에는 그것이 엄청 많아 가지고 강 이삼키로(2,3kg)씩 전부덜 터 왔는디 이제는 우리 세화 곶은디는 하나 보젠 해도 못 뵙니다.

Q : 오분재기는 손으로만 잡아댕겨도 나올 철이파?

A : 아니, 거

Q : 비창으로?

A : 호맹이로. 호맹이로 가서 이렇게 찢러 가지고 그 이렇게 허면 나오고.

Q : 전복인 경우는 잘못 해볼면 이게 상처 입을 수 있잖아 예?

A : 예. 거난 전복은 차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영 좀 뚜거운 디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으니까, 우이로 뭐 나오게, 나온, 다 발이 나오면 우로 비창을 찢러 가지고 이렇게 자치면, 비창 순서대로 해야주. 비창도 안터레 들어가는 거 잘못 허면은 기스가 나 가지고, 또 허기 등이 굶은 디는 기스도 나고 허주만은, 이제는 옛날에 많을 때에 기스 난 것도 많았주만은 이제는 기스허는 거 보단도 물속에서 혼 번 봐 질 정도도 하나도 안보여. 남군더레는 많이 난다고 험디다. 양식덜 이제 막 허니까. 그러니까 전복은 양식헌 거를 사가지 아니허고 막 저, 완도 전복이 너무 싸니까. 양식 해 놓은 거 안 사먹어.

Q : 바다 여기도 어느 여에 가면은 구쟁기 많고, 뭐 그런 거들이 이수과?

A : 예. 우리도 옛날에 험 때는 여기는 쟁반여, 옷조개왓, 셋조개왓, 알조개왓해서 세군데(3 곳)고 저레 넘어가면은 볼락여, 큰볼락여, 죽은볼락여, 옛날 그 분들이 어떻게 그 여를 잘 지어냈는지 몰라, 경허고 요쪽 동쪽으로 모샅테는 또 지미라고 해가지고 좀 짚으긴 해도 그런디

Q : 이런 데는 뭐가 많이 나와 마썸?

A : 그저, 소라철에 소라 가서 잡고, 소라 잡아오고, 또 이제, 저 뭐 성게도 풀이 있어야 성게가 먹어서 살이 찌는데, 풀이 없으니까 성게가 안 먹어노니까 그 풀 나는 디를 찾으면서 성게를 잡주

Q : 그 전에, 요즘은 그 도구들을 다 장에 가서 사옵니까?

A : 도구?

Q : 응

A : 도구는 장에는 호맹이 곶은 것도 있주마는, 해녀 지킴이라고 해서 도에서영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는데, 뭐 성게 돌리는것도 다 해주곡, 또 허리에 차는 것도 다 보조해주고 허면은 다 허는데, 아직들은 해녀들이 허는디 허주만은 설트러 가지고, 거 허리에 차는 것도 허면은 물 속에서 몇번 조물어 사민 자기가 나올수 있는 거다 해서, 좋다고 허는데 잘 안허염수다게. 성게도 탄 데 성게 막 많이 나는 데는 물 해녀들이 하나에 남편이나 식구가 하나같아 예. 게민 한 사람은 돌르고, 이제 한 사람은 또 거 성게 알 파내고, 경허면서 허니까 예, 혼 사람이 물에들영 나가지고 그거 까고, 그거 돌르고 해서 허민 얼마 못 험니다.

Q : 식구들이 다 돌봐 주네 예

A : 예.

Q : 전에 물적삼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 주셔 가지고 했었잖아 예? 그거를 복원하는 데, 그 손으로 땀땀이 다 멘드니까 그 때 한 오백만원(5백만원)이 든 기억이 있어 예? 그 계장님은 그 걸 직접 만드셔수과?

A : 응 계, 옛날에는 저 그 초롱불, 옛날에는 호야 있잖아 호야, 석유불로 허는 거.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허면은, 전기 안 올 때는 그 걸로 다 재단해 가지고, 밤에도 허고, 낮에도 허고, 우리대로 다 허고, 미싱 또 이신 사름은 또 물 해녀질 육지로 나갈 때는 막 곱게시리 바대로 막 탄 색 놓면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물 저고리 다 행 입는데, 보말, 이런 모작도 저 단추를 돌지 안 허고 다 천으로 다 그걸 함쳐가지고 불모작이라고 불모작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 했고. 경해서 빠지지도 않고, 경헌디 나도 훈 20벌 우리가 해 놔가지고 허던거 다 자꾸 뭐 고등학교 어디서 다 빌어 가부니까 이젠 열개쯤 있어게. 요번에 가진 건

Q : 테왁 망사리는 시아버지나 누계 남자 분들이 멘들아 주고?

A : 옛날에는 이거 차례가 깊으리마는 두령박으로 해야주, 촌에서는 초가집덜 많으니까 콧을 싱겨서. 이것도 세화 경우에는 리사무소에서 콧을 싱겼습니다. 계민, 싱그면은 그게 이게 콧이 어느 정도 크면, 또 그거 그늘에서 말랴 가지고, 고망 툴라. 속에 또 흙 파내고, 굳은 콧을 이제 몰라 간 후로 몇 달 동안 허면은 팡팡 굳어지면, 그걸 씨를 다 흙파낸 다음에 이제 그 둘러낸 걸로 또 흙을 막아 놓고 또 위에 또 둘레를 여덱, 영영 줄 허는 거를 여덱번 줄을 해 가지고 이제 그걸 멘들어 놓은 다음에는 또 두령박 그물, 저저 망 메우는 거 있어 예. 이렇게, 도는 거, 그거는 왜냐면은 드래라는 거 선당 위에 드래라 가지고 그걸 해다가 장에도 풀지마는, 그 걸 해다가 둥글랑 흰 거 에염을 만들어. 요즘은 에염도 안 만들고, 그자, 나이 저 플라스틱으로 그걸로 뽕뽕 다 나오고, 또 그물도 막 나와서 망아리로 허주만은, 옛날에는 신사라라고 허는 그걸로 해서 비어가지고 막 물리고, 또 억새, 산에 억새, 그걸로 이제 미빠쟁이라고 해서 그거 저 피는 거를 이제 빵서 그 걸 몰랴 가지고, 다 돌 이렇게 두드리는 거, 망 저 무신거고, 옛날에 그 마께가 '덩드렁 마께'가 있는데, 그 걸로 두드려사 그 걸 보드랍게 완전히 멘든 다음 손으로 다 떼어. 계민 얇으게 해서 초롱불 밑에서 훈 이백발(200발) 몇일 짜가지고, 할아버지 계신분 들이나 아버지나 계신 분들이 그 걸 해서 또 망아리를 짹니다. 아이거는 족게 짜고 어른 거는 좀 크게 짜고, 경해서 옛날에는 천초 곱은 거는 많이 나니까, 몇 분이니까. 아이덜은 또 요만큼해 가지고 허고, 또 눈도 그 때 오십(50)년대는 쇠눈이 잇어나서. 조글락 흰 거. 쇠눈. 그 걸로 써서 우리도 옛날에 물질 배와 났는데, 그 거 써서 어른들도 허고, 또 그 후에는 쇠 큰눈, 그걸 또 그게 어디서 나느냐면 한동 위, 저 웃탄동을 보고 옛날에는 웃개라고 했주. 웃개. 저 안경 물 눈 만드는 할아버지가 계셔 나신디

Q : 갯눈

A : 경해서 갯눈이라고 하고, 그 후에 육십년도(60년대) 후에 칠십년도(칠십년대) 거의 되가니까 고무옷도 나고, 고무눈도 나고, 그 옛날에는 아이덜은 이제 출구덕, 대로 짹거, 작은 거, 어른덜은 질구덕, 경해서 큰 것에서 이제 그걸 속에 뭐 담고 해 가지고 막 불 땀 거, 경 행 가서 담아 가지고 물에 들영 나면은 뭐 그 걸로 불 추고,